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5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해의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목의 요청 기도 제목 -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직분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 남한 땅에서 만 명의 다음세대 제사장들을 일으키십시오. -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길을 실행하여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십시오. - 북한 땅에 복음을 확산하십시오.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건축 과정을 인도하십시오.

♣ 교회소식

《헌금 안내》

1. 2016년 복음에 이르는 교통(헌금) 안내

- ① 약정 기간 : 2015.12.27(주일) ~ 2016.1.31(주일)
- ② 헌금 기간 : 2016.1.3(주일) ~ 12.25(주일)까지(매월)
- ※ 기존 하시면 분은 동일한 번호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새로 하시는 분은 약정서에 작성하시어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것은 약정서를 참고하거나 봉사자들에게 문의바랍니다.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매월 첫째 화요일 기도 실행 안내

- * 일시 : 2.2(화) : 목의 요청 기도 참조

2. 자매 집회 : 2016.2.4(목) 오전10시 학생센터

3. 목회자 세미나 겨울 특강 (주제: 성경의 핵심)

- ① 일 시 : 2.2(화) 오전 10시 ~오후12시10분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시간 훈련 전반기 예비훈련

- ① 일 시 : 2.22(월)-28(주일) 등록 22일(월) 오후 4시부터
-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 ③ 훈련비 : 217,000원(농협351-6794-0008-23 성경진리사역원)
* 입금시 본인이름으로 입금바람
- ④ 신 청 : 집사실로 2.15(월)까지

2. 봄 이스라엘 탐방

- ① 일 시 : 3.22(화)-31(목)
- ② 장 소 : 이스라엘 전역
- ③ 예상경비 : 3,800,000원

- ④ 신청금 : 400,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⑤ 신 청 : 집사실로 2.15(월)까지

3. 여름 국제 아시아 대학생 훈련 안내

- ① 일 시 : 7.14(목)-20(수)
 - 1) 훈련 집회 : 7.14(목)~7.17(주일)
 - 2) 쉬임 여행 : 7.18(월)~20(수) 2박3일
- ② 장 소 : 1) 훈련집회 : 대만 중부취임센터
2) 쉬임여행 : A팀 : 의란, 화련, 숙박 : 화련쪽 호텔
B팀 : 가오수, 쉐딩, 숙박 : 쉐딩쪽 호텔
- ③ 훈련 내용 : 2016년 여름 결성-연구
- ④ 훈련 대상 : 통역없이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 졸업생, 봉사자
- ⑤ 신 청 : 집사실로 3.1까지 신청(전국 100명 선착순임)
- * 모든 집회는 영어로만 진행함

《기타 사항》

1. 복음서원 광고

- * 위트니스 리 전집(1963년~1972년) 32권, 세트재정이 65만원 (지가 95만원임) 2.29(월)까지 도서봉사자 신청
- * 생명의 흐름TV 앱 콘텐츠 무료개방
(성경1년1독, 리형제님 동영상, 교회들 소식, 다음세대, 새길등)
1년 7차집회는 4월말까지만 무료 제공됨
- * SK IPTV는 1.31까지만 방송되며, KT IPTV 전환하시거나 앱을 다운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KT IPTV는 기존과 동일함)

2.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가을장로훈련 메시지9

- * 다음 메시지는 2015겨울훈련메시지입니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1.18.(월) ~ 2016.01.24(주일))

지역	1지역 (57명)					2지역 (77명)					3지역 (91명)					4지역 (95명)					5지역 (90명)					6지역 (48명)					7지역 (15명)					계				
그 룹	한인	미인	유인	신종	진정	태국	가산	구미	수원	창원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제주	수원	대전	충청	전남	전북	강원	세종	시흥	경남	경북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청	전남	전북							
인수목표	113					157					110					194					146					80					800									
주요상기	13	12	7	13	10	2	5	14	6	10	11	8	15	8	23	15	16	22	15	12	7	3	12	18	11	12	4	6	10	18	34	15	23	15	11	14	8	7	473	
기 도	7	3	3	6					3	2	2	8																											65	
그 룹	8	8	4	5	11	1			3	9	9	9			22	7	11	15	12	8	6	3	3	9	6	8	6	5											227	
아침부흥	11	5	4	7	8	1																																151		
어린이	11					6					8					22					6					5					5					63				
아빠스파						10					6										7															23				
종교문화	8					1					17					6					15					10										57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1. 31. 16-05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계시는

종교와 전통과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됨

갈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네 가지 부정적인 항목들과 네 가지 긍정적인 항목들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유대교로 대표되는 종교(13-14절), 전통(14절), 사람(1, 11-12절),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12절)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는 종교와 대립되시는 그리스도(1, 12, 16절), 전통과 대립되는 교회(13절), 사람과 대립되시는 하나님(10, 15절),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되는 계시(12, 16절)가 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갈 1:1) 되었다. 사도로서 바울의 근원과 기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거나,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갈1:11~12).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었다. 가르침은 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산출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계시는 사람과 종교와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된다.

종교는 악한 이 시대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의 중점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 시대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 전체는 사탄의 조직이며, 그것은 서로 다른 많은 시대들로 나누어진다. 19세기가 한 시대였고, 20세기가 또 다른 한 시대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이 한 시대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가 또 다른 한 시대였다. 그리고 1960년대는 특별

한 종류의 행동과 복장과 외양을 가져온 또 다른 시대였다. 이 모든 시대들이 다 함께 더해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따르면, 바울 당시에 현 시대는 종교였다. 그 당시에 종교로부터 구출 받는 것이 악한 이 시대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는 갈라디아가 있었던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에서 '현대적인' 종교였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 율을 지키며, 레위기에 따라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신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기독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종교이다. 현대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은 현대적인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시대에서는 유대 종교였고 우리의 시대에서는 기독교라는 현시대의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죄들 때문에 내주셨다.

사전에서는 종교가 좋은 단어로 정의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1장은 종교가 그리스도와 대립된다고 말한다. 종교는 교회를 박해하고, 강탈하며,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는 잘못된 종교이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방식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전통들과 축제일들만을 지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라는 악한 이 시대로부터 여전히 구출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가 없는

기독교 안의 낡고 전통적인 실행들은 악한 이 시대의 한부분이다. 종교적인 시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인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사도들의 시대에 유대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오늘날의 기독교도 악한 이 시대인 것이다. 그 당시에 사도들을 반대했던 것은 주로 세상이나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한 이 시대인 유대교였다. 유대교는 심지어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다. 바울은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악하지 않은가? 무엇이 이것보다 더 악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종교를 전통과 윤리의 관점에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그분의 영원한목적의 관점에 따라 분별하신다. 종교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단지 종교일 뿐이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산출하지 못하는 종교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합당한 교회생활과 교회를 산출하는 유일한 요소이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행한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종교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제가 종교를 산출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루어지고 행해져야만 한다.

주님의 회복이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새 창조물, 곧 새사람인 교회는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 산출된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핵심 구절들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대립되시고, 교회가 전통들과 대립된다는 것을 볼 것이다. 게다가 합당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계시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자신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우리의 기원과 시작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적인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교회생활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온 존재에서 너울을 제함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방식의 집회와 기도와 가르침들을 뒤로 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낡은 전통적인 성경 지식도 뒤로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온 존재에서 너울을 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결과로 교회생활을 가진다. 교회생활은 종교적인 가르침들, 은사들, 규칙들, 형식들, 혹은 규례들의 문제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도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옳고 그름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악한 이 시대인 종교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너울들이 제해지고,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살아 계시고 내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놀랍고도 직접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후 3:18). 우리는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교회생활을 가진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들, 은사들, 규칙들, 형식들, 혹은 규례들이 아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생활을 가진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길 기뻐하시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너울들이 벗겨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참되고 실제적인 교회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17-24쪽)*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활(하나님-사람의 생활)
- 기도를 통하여 활력화 됨**

빌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1. 기도 외에는 활력화 될 길이 달리 없음

증가를 위하여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한 무리의 성도들을 방문하고서 아주 긍정적 인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다지 활력적이지 않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 생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 영을 만지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성경에서 그 영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기도하는 것과 그 영은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영이 없이는 기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엡 6:1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단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성령이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되었다(고전 6:17).

만일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단지 몇 마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영을 만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일 한 주일 동안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기도 외에는 활력화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

2. 이러한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활력화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주님과 철저한 교통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그 교통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총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철저히 자백하도록 이끌려질 것이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재현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당신께 새로이 헌신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생활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함 없이는 누구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다. 교통과 자백, 헌신의 단계를 거칠 때 우리는 기도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자신을 그 영-본질적인 영, 경륜적인 영, 만유를 포함한 영-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럴 때야야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어떻게 이 영을 따라야 하는가를 배운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

면 우리는 정말로 활력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이 신약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 계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3. 활력화되는 길

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안에서 분발됨

비록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상고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 안에서 분발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활력화되게 할 것이다.

나. 주님께 철저히 자백함

회개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 실수, 잘못 행함, 범죄, 허물 등을 철저히 자백할 필요가 있다.

다. 주님과 그리고 추구하는 성도들과 긴밀하고 친밀하고 철저한 교통을 가짐

우리는 주님과 및 추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깝고 친밀하고 철저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님과만 교통을 갖는 것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수고할 동반자들을 얻어야 한다. 성경의 본에 따르면 다니엘은 세 명의 동반자가 있었다(단1:6). 나는 당신이 세 명의 동반자를 얻도록 격려하고 싶다. 당신에게 동반자를 달라고 장로들에게 청하지 말라.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누군가에게 인도해 주시도록 구한 후에 한 사람을 교통 안에서 당신의 동반자로 만들라. 그러면 당신은 몇 명의 동반자를 얻을 수 있다. 자연히 당신과 당신의 동반자는 매우 훌륭한 소그룹이 될 것이다.

라. 자신을 주님께 다시 헌신함

교통 가운데 동반자를 얻고 난 후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데 앞장서기를 배워야 한다. 당신은 이미 헌신했을지도 모르지만, 새롭게 다시 헌신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친 바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당신 자신을 다시 헌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36-139쪽 발췌)